

겨울철 구제역 방역관리 집중

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하고 분야별 관리 강화·축산교육 등 시행

전북도가 오는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 썰 틈 없는 방역에 나선다.

지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구제역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한 만큼, 겨울철을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겨울에는 인천을 비롯해 7개 시·도에서, 2016년 겨울에는 전북과 충남, 2017년에는 전북, 경기, 충북, 2019년에는 경기와 충청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도는 오는 2월까지 항체 검사의 확대와 취약분야 집중점검, 소·돼지 분뇨이동 관리, 교육 등 분야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최우선으로 항체 검사 확대에 나섰다.

항체양성을 과태료 부과대상인 소 80% 미만, 돼지 30%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도 집중관리를 통한 양성률을 높일 계획이다.

소 항체양성률 90% 미만이었다던 농가 3호(戶)를 95.8%로, 돼지 항체 양성률이 30~60% 구간에 2회 이상 속했던 농가 14호를 97.6%로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항체 검사 확대와 아울러 취약분야 점검에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항체양성을 저조로 과태료 부과 농가 7호와 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위탁농장, 농장을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임대농장 등 126호에 대한 항체 관리와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항체양성률 30% 미만인 7호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500만원 처분 이후 예방백신 재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해 93.9%로 항체양성률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신청해 검사 후 승인된 농장의 분뇨는 직접 인접된 시·군이나 타 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축산교육도 시

속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축산차량 방역관리, 9월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10월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 11월 농장 소독요령, 12월 우제류 밀집단지 방역관리를 주제로 정해 유튜브로 축산 관련인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가금농장 방역관리와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소, 돼지와 염소 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 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관련기관은 백신접종 미흡 농가 점검, 농장 주변 주요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항체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검체 접수 과정 설명하는 정세균 총리 (왼쪽)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세전 의료재단 분자진단센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접수 과정 설명을 듣고 있다.

올해 바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침 적극 홍보

전북도, 3월 2일~4월 30일까지 신청...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도 신청 가능

올해부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사업도 추가로 지원하며, 도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바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침을 시·군과 읍·면·동에 배포하며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 바뀐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업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임

대차계약서와 농지소유주 확인서 등 실제 경작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은 사업 기간인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인증이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국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동일하게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07년도부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농업 유지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들이 변경된 직불제 내용을 알고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 최다 선정

4개 지구 360호 선정돼 국비 600여억원 확보

전북도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4개 지구, 360호가 선정되며,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도는 전국 5개 지구, 460호 대상 중 4개 지구, 360호를 확보하며, 싹쓸이했다.

국비 600여억원 확보는 덤이다.

전북도는 2020년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4개 지구 360호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김제시 신흥동(100호)과 요촌동(80호), 완주군 고산면(80호), 무주군 무주읍(100호)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2015년에는 고창

군 황산리, 2016년 완주 황운리, 2017년 고창 무장면에 이어 2019년에는 장수군 장계면과 남원시 운봉읍이 선정되며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

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국토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는 별개로 '2020년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총 4개 지구 506호(김제 백구면(100호), 백산면(110호), 익산 낭산면(200호), 전주 동서학동(96호))가 선정되며,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신시배수갑문 현장 방문·관계자 격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안전실태 점검을 위해 6일 신시배수갑문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배수갑문을 확대 개방하기로 한 데 따라, 주간에만 운영하던 배수갑문을 작년 12월 29일부터 주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양 청장은 경광등, 감색등,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 보강실태를 살피고, 운영상황실에 둘러 데이어, 폐회로티비(CCTV) 등을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이소열 새만금사업단장은 "배수갑문 개방 시 상류 3km까지 급류가 발생해 선박 등이 주변으로 접근하면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면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인력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양 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청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김양욱 교수

현영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컨설턴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